

판소리 ‘흥보가’ 피아노와 놀다

‘동편제’ 전인삼 전남대 교수

‘피앗고’ 임동창과 협연

9일 전남대 예향홀 무료 공연

호방한 동편제 판소리가 피아노를 만났다.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춰 공연을 하던 소리꾼은 이번에는 흥겨운 피아노 연주에 몸을 맡기며 소리를 이어간다. 그의 소리를 들으며 피아노를 두드리는 연주자 역시 소리꾼과 하나가 돼 즉석 연주를 선보인다.

동편제 맥을 잇고 있는 전인삼 전남대 교수가 독특한 무대 ‘전인삼의 흥보가, 피아노와 놀다’를 무대에 올린다. 9일 오후 7시 전남대 예향홀.

1년에 4차례 작품을 공연하는 ‘전인삼의 춘하추동’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전 교수는 지난해 ‘춘향가’를 무대에 올렸고 올해는 ‘흥보가’를 세 차례 공연했다. 그가 무대에 올리는 동편제 ‘흥보가’는 송만갑-김정문-강도근으로 전승된 소리로 그는 통성을 위주로 하면서 치열하게 소리하는 것이 판소리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다.

전씨와 호흡을 맞추는 이는 피아니스트 임동창이다. ‘허튼가락’ 창시자인 그는 자유분방한 연주로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진 인물이다.



임동창

전교수와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사이다. 전 교수는 임씨와 함께 무대에 서면 전통 판소리 판에서 고수를 만난듯 편안하고 자유자재로 소리를 하고, 임동창은 전 교수가 가운뎃게 질러대는 소리를 아낀다.

여기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김영길, 소나무 프로젝트 대표 장재효, 지난해와 올해 전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교수 윤호세씨가 참여한다.

사회는 김기형 고려대 국문과 교수가 맡는다.

남원 출신인 전 교수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등을 수상했다. 강도근, 성창순, 박봉술 선생 등을 사사했으며 전남대 소리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10-8604-96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인삼 교수



박전현의 문화카레

우리 집에는 ‘펭귄 한 마리’가 산다. 아니 펭귄인형이 산다고 하는 게 맞겠다. 녀석의 키는 15cm, 파란색 줄무늬의 머플러와 털실 모자를 쓴 모습이 앙증맞다. 작고 귀엽다고 해서 ‘페어리 펭귄’(Fairy Penguin)으로 불린다.

요정펭귄을 만난 곳은 호주 필립 아일랜드(Phillip Island)의 기념품숍. 필립아일랜드의 명물인 페어리 펭귄 페레이드를 보고 빈손으로 돌아오기가 아쉬워 ‘펭 대신 달’으로 펭귄인형을 구입했다. 필립 아일랜드는 호주 멜버른 시민들의 당일 코스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멜버른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이면 달

을 기다리고 있다. 너무나 ‘고전적인’ 열쇠고리와 엽서, 스마트폰 케이스, 필기도구에서부터 인형, 스카프, 가방, 옷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관광객들은 펭귄과의 짧은 추억을 떠올리며 경쟁하듯 지갑을 연다.

어디 필립아일랜드뿐인가. 외국의 유명 미술관이나 관광지를 방문하다 보면 매년 출구 쪽에서 마주하게 되는 곳이 있다. 바로 기념품숍이다. 기자의 경우, 어떤 날엔 오히려 전시장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며 기발한 아트상품에 감탄했었다. 셰익스피어 생가

펭귄인형과 셰익스피어 맥주

는 데다 코알라, 회귀조류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어서다.

뽀뽀뽀뽀도 필립아일랜드 투어의 백미는 펭귄 페레이드. 펭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섬에는 현재 약 3만 7000여 마리의 페어리 펭귄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매일 평균 2천~3천 마리의 펭귄이 해변을 돌아다니는 행렬이 장관이다. 필립아일랜드 측은 이 귀귀한 풍경을 투어 상품으로 개발해 전 세계에서 수백만 여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관광객들은 매일 저녁 지정된 전망대에서 40분간 펭귄 행렬을 관람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한다. 손에 닿으면 잡힐 것 같은 펭귄들의 앙증맞은 몸짓에 넋을 놓는 관광객들이 한 둘이 아니다.

페레이드가 끝난 순간, 눈 앞에서 사라진 펭귄에 대한 허전함을 달래주는 건 다름 아닌 기념품숍(art shop)이다. 가장 목 좋은 곳에 자리한 숍에는 펭귄을 소재로 제작한 수 백여 종의 상품이 관광객들

의 맥주를 보면서, 존 F 케네디 기념관의 액세서리를 보면서도 그랬다. 하물며 아름다운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의 아트숍은 말해서 무엇하라.

필립아일랜드를 나서는 길, 문득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썰렁한 아트숍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제 개관 1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 내년 개관 25주년을 앞둔 시립미술관에선 명성과 역사가 무색하게 색깔 있는 아트상품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근래 독창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아트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제 ‘잘 만든 아트상품’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관광지나 도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브랜드로 진화해 있다. 펭귄인형을 볼 때마다 필립아일랜드와 멜버른이 떠오르는 듯이. 언제쯤이면 문화광주를 상징하는 멋진 아트상품을 거실에 늘어놓을 수 있을까.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베를린 필 솔리스트’ 수험생 50% 할인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오는 8일(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 공연을 갖는 세계적인 베를린 필 하모니 솔리스트가 수험생 5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광주를 찾은 팀은 베를린 필에서 오랜 세월 각 부문의 솔리스트로 활약해 온 단원들이 구성된 ‘필하모닉 비르투오지 베를린(Phil harmonic Virtuosi Berlin)’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연주자 6명이 화음을 만들낸다.

공연 레퍼토리는 로시니의 ‘현악 소나타 6번 D장조’,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D장조’, 마뉴엘 데 파야의 ‘짧은 인생’, 이삭 알베니스의 ‘탈라게나’와 ‘탱고 장조’,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이다.

인터파크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며 티켓가는 R석 8만 8000원, S석 5만 5000원, A석 3만 3000원이다. 문의 063-229-369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올해 마지막 강좌

31일까지 4주간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

‘영화로 상상하기’ 진행도

다양한 인문학을 매개로 시민들을 만나온 광주시민인문학이 올해 마지막 강좌를 개설했다.

광주시민인문학은 31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38기 정기 강좌를 진행 중이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정규강좌 A타입’은 인문학을 토대로 다양한 학문과 문화를 접해보는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한국문학 시간으로 이진 교수가 ‘동양사상으로 사유하기3 : 신영복의 ‘강의’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은 한국역사 시간으로 조상현 교수가 ‘동북공정과 식민사학’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수요일에는 ‘몸의 철학, 메를로 폰티 ‘지각의 현상학’을 주제로 인문학 이론스터디가 열린다. 목

요일과 금요일은 명혜영 교수와 안철 클래식 음악해설가가 각각 ‘포스트 미소지니(post misojuny) : 여성혐오 다시 읽기’와 ‘The 클래식 : G.F.Handel’를 주제로 토크를 한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정규강좌 B타입’은 이진 교수와 명혜영 교수가 각각 ‘시와 인문학적 사유’와 ‘페미니즘적 상상력 : 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한편 토요일(오후 2시)과 일요일(오전 9시)에 진행되는 SEMI강좌는 ‘영화로 상상하기-시대를 읽는 키워드 “다큐멘터리”와 ‘겨울바다 파도의 노래를 들어라! in 남도’가 진행된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인문여행’은 참가비 별도.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 박성현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호남민화사랑회 8일 민화 강좌

광주시립미술관이 호남민화사랑회와 공동주최로 8일 오후 2시 본관 세미나실에서 민화강좌 ‘우리만 몰랐던 우리의 보물, 민화 책거리’를 연다.

이번 강좌는 국내 민화권위자 정병모 교수(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를 초청해 민화에 대한 기초 지식과 함께 옛 그림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정 교수는 민화에서도 책을 주제로 그린 ‘책거리’ 작품을 중심으로, 책거

리가 유행한 조선 후기 정치·사회·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살펴본다. 또 궁중화와 민화 책거리를 비교함으로써 두 그림이 어떤 차이가 있고 민화가 왜 한 국적인 그림인지들 들려줄 예정이다.

정씨는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한국민화학회 회장, 한국민화센터 이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2-613-71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